KB증권

FIRST TO THE MARKET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5년 7월 10일

미국주식 시황 Analyst 안소은
se.ahn@kbfg.com

US Market Pulse

성장주 반등, AI를 통한 강한 이익 성장과 OBBBA 감세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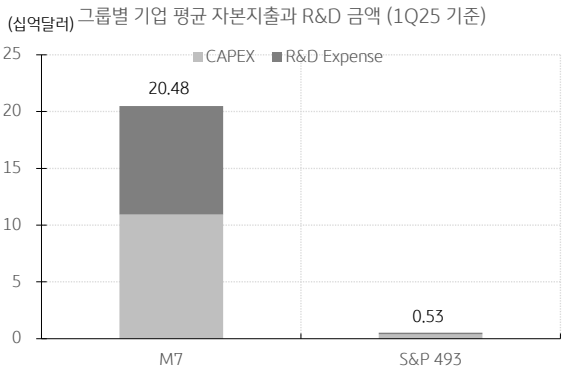
트럼프 관세 압박과 연준 신중론에도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만에 다시 신고점을 경신. 트럼프 대통령은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 등 7개 국가에 관세 서한을 추가로 발송. 이와 별개로 브라질에도 50%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브라질의 경우 미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난 4월초 상호관세를 처음 발표했을 때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관세 위협에 BRICS의 반미 정책 추진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준의 신중론: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신중한 태도가 재확인됨. FOMC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일부 위원들은 7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의견은 소수에 그침. 대다수 위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통화정책 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여전히 선물시장에서는 6월 점도표 중앙값과 같은 올해 50bp 인하 기대를 반영 중
- 대형성장주의 감세 수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이어졌고 연준의 신중한 태도가 재확인됐음에도, 증시는 성장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 M7 중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모두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장 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최초로 상향 돌파. AI 시장 확장에 따른 강한 이익 성장 기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 트럼프 감세안 (OBBBA)에 포함된 기업 대상 감세 정책도 대형성장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OBBBA 기업 감세 정책의 주요 내용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화, 미국 내 연구/실험 (R&E) 비용의 발생연도 100% 공제 허용 등 (김일혁 7/7). 이는 자본투자와 연구개발 규모가 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것. 올해 1분기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의 CAPEX와 R&D 금액을 비교해 보면, M7의 평균 금액은 204.8억 달러로 S&P 493의 평균 금액인 5.3억 달러에 비해 40배 가까이 많은 수준. 업종별로 보면, M7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성장 업종들 외에도 유틸리티와 에너지 업종의 평균 금액이 큰 편

새로운 중국향 AI 칩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 AI 전력 수요 기대 속 인수 관심을 받고 있는 A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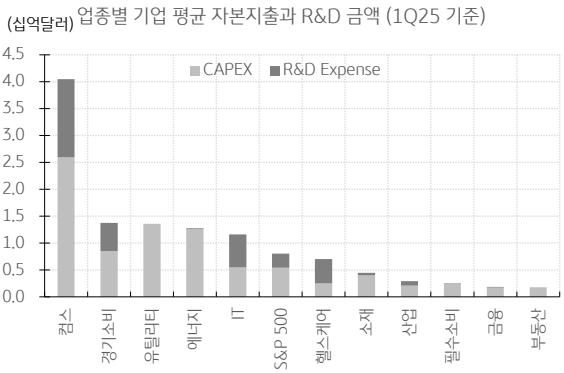
- 엔비디아 (NVDA): 전일 1.8% 상승. 엔비디아는 9월 중으로 중국 전용 AI 칩 출시할 계획. Blackwell RTX Pro 6000 칩의 수정 버전으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HBM과 NVLink (고속 인터커넥트) 기능이 제거. 지난 4월 H20 칩이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5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바 있어, 이번에는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해당 칩은 중국 내 경쟁사들이 생산하는 최고 성능 제품들과는 성능 면에서 경쟁이 어렵지만, CUDA 소프트웨어 기반의 엔비디아 생태계에 깊이 의존하는 기업들은 전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여전히 엔비디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기존 수요층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알리바바·바이트댄스·텐센트 등 주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리스크를 인식하고, 저사양 제품에 대해서도 국산 AI 칩 대안을 적극 테스트하고 있어, H20 칩에 비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신제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주 젠슨황 CEO의 베이징 방문 중 공개될 예정
- AES (AES): 전일 19.8% 상승. 사모펀드와 인프라 투자자로부터 인수 관심을 받고 있는 AES가 잠재적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 AES는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석탄 자산과 공공 유틸리티를 소유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트럼프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리스크에도, 늘어나는 AI 컴퓨팅 파워가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거라는 기대가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인수 관심을 높인 것으로 보임

그림 1. OBBBA 기업 감세의 수혜가 집중될 대형성장주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2. 성장 업종 이외에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도 마찬가지



자료: Factset, KB증권

표 1.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상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BA	보잉	171	산업	3.7	5.6	40.9
2	MRK	머크 앤 코	210	헬스케어	2.9	5.8	2.2
3	PLTR	팔란티어	324	IT	2.4	9.5	55.6
4	AVGO	브로드컴	1,307	IT	2.2	3.2	50.1
5	CAT	캐터필러	189	산업	2.0	4.5	33.6
6	GILD	길리어드 사이언스	141	헬스케어	2.0	2.3	7.6
7	NVDA	엔비디아	3,974	IT	1.8	3.3	42.5
8	META	메타 플랫폼스	1,591	커뮤니케이션	1.7	-0.1	25.1
9	NEE	넥스트에라 에너지	152	유틸리티	1.6	3.9	9.0
10	MMM	3M	84	산업	1.5	2.6	12.8

자료: Factset, KB증권

표 2.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하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MO	알트리아그룹	97	필수소비	-3.0	-1.7	2.5
2	ADBE	어도비	158	IT	-2.3	-3.2	2.4
3	CHTR	차터 커뮤니케이션	55	커뮤니케이션	-2.0	0.6	16.3
4	MDLZ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87	필수소비	-2.0	-1.4	1.0
5	ACN	액센추어	185	IT	-2.0	0.7	-0.8
6	MET	메트라이프	53	금융	-1.8	-2.7	4.0
7	UNH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275	헬스케어	-1.6	-2.0	-47.6
8	TMUS	T-모바일	264	커뮤니케이션	-1.6	-1.2	-8.9
9	INTU	인튜이트	215	IT	-1.5	-0.9	29.0
10	TMO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159	헬스케어	-1.5	2.8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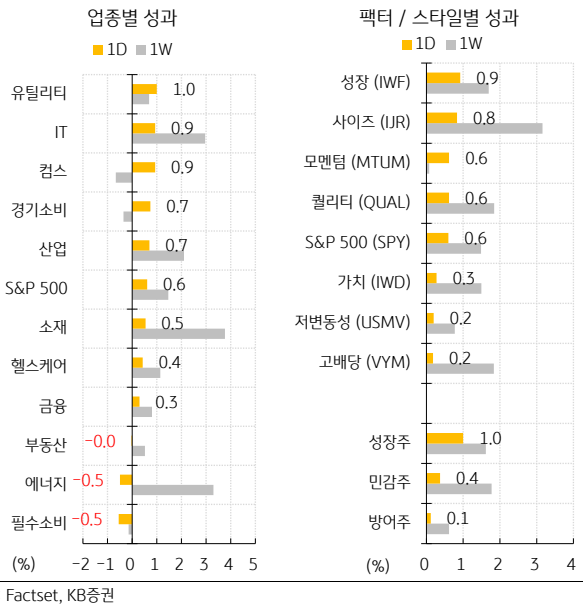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표 3. S&P 100 시가총액 상위 20위 성과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NVDA	엔비디아	3,974	IT	1.8	3.3	42.5
2	MSFT	마이크로소프트	3,742	IT	1.4	1.5	28.9
3	AAPL	애플	3,154	IT	0.5	5.0	6.2
4	AMZN	아마존닷컴	2,363	경기소비	1.4	-0.3	16.5
5	META	메타 플랫폼스	1,591	커뮤니케이션	1.7	-0.1	25.1
6	AVGO	브로드컴	1,307	IT	2.2	3.2	50.1
7	GOOGL	알파벳 A	1,028	커뮤니케이션	1.3	-1.1	11.3
8	GOOG	알파벳 C	970	커뮤니케이션	1.4	-0.3	10.3
9	TSLA	테슬라	952	경기소비	-0.6	-8.6	8.7
10	JPM	제이피모간체이스	787	금융	0.1	-1.4	20.8
11	WMT	월마트	773	필수소비	-0.3	-0.5	8.0
12	LLY	일라이 릴리	746	헬스케어	1.2	1.5	4.4
13	ORCL	오라클	662	IT	0.6	12.2	68.8
14	BRK.B	버크셔 해서웨이	643	금융	0.3	-1.4	-8.2
15	V	비자	612	금융	0.9	2.6	7.6
16	NFLX	넷플릭스	548	커뮤니케이션	1.0	-2.6	36.3
17	MA	마스터카드	509	금융	0.5	2.7	9.6
18	XOM	엑슨 모빌	490	에너지	-0.3	4.0	7.6
19	COST	코스트코 홀세일	436	필수소비	-0.4	-0.3	1.8
20	JNJ	존슨앤드존슨	376	헬스케어	0.3	2.5	3.5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3. S&P 500 업종 / 팩터 / 스타일별 성과



자료: Factset,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